

무사고운전의 지름길

방어운전요령(I)

金 元 夏*

□ 밤먹듯 일어나는 교통사고

신문을 펴들기가 겁이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 설 새없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도 혹시 그런 사건들에 휘말려들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가 평배해져 차라리 사건 뉴스를 모르고 지내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일 것이다.

사건들 중에는 별 해괴한 사건에서 늘상 일어나는 강도·살인·폭행같은 것도 있지만 밤먹듯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사고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91년전인 1899년 미국의 H.H. 브리스라는 사나이가 뉴욕의 전차에서 내리는 순간 때마침 지나가던 택시에 치어 숨을 거둔 것이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사고 기록은 정확치 않지만 지난 '60년부터 '89년말까지 30년동안 134,687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한해동안에 전국에서는 255,78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2,603명이 사망하고 325,896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따져볼 때 701건 발생에 35명이 사

*교통신문사 취재부장

망하고, 893명이 다치고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255,787건의 교통사고가 정비불량이나 피해자과실보다는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으로 일어난 사고가 99.9%인 255,667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엄청난 재해가 아닐 수 없다.

최근 H보험회사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대도시의 가구주 1,200명을 대상으로 장래의 불안요인이 어떤 것인가를 설문조사했는데 조사대상자중 34%가 교통사고에 대해 가장 불안해 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 4가구중 1가구는 가족의 교통사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 교통사고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마디로 운전자들이 올바르게 운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89년 전국의 2,660,212대의 차량이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6,184,559건이나 된다. 차량 1대당 평균 2.3회꼴이 된다. 이 건수는 경찰이 스티커를 발급한 건수이고 경찰의 눈을 피해 위반된 건수는 이보다 수백배는 되지 않을까 한다.

한번 위반한 것이 요행히 걸리지도 않았고 사고도 일으키지 않아 좋아할 것은 없다. 한번 한 짓이 두번 되고 세번 될 수 있다고

보면, 걸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년에 1개사단 병력이 교통사고로 전멸하고 1개군단 병력이 부상을 입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분명 교통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모두가 나서서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세우는 길뿐이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실천하는 올바른 운전방법을 터득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교통사고에 휘말려들지 않는 운전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 방어운전 100 포인트

오늘의 교통문제를 교통전쟁이라고 풀이 했으면 교통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Defensive Drive, 즉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다. 방어운전을 방위운전(防衛運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귀에는 방어운전이 많이 익숙해 있어 앞으로 방어운전이라 표현한다.

미국의 N. S. C. (National Safety Council), 즉 全美國安全協會에서 안전운전교육의 한 방법으로 Defensive Driving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방어운전중 구체적인 주의사항 100가지를 선정한 「Defensive Drive 100Point」가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접목시켜 방어운전요령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1. 방어운전이란 위험사태를 신속히 예견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방어조치를 강구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방어운전! 하면 소극적인 운전이라는 인상을 받기 쉬우나 이는 적극적인 방어수단을 뜻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 ◎ 항상 최악의 사태를 예견해야 하고
- ◎ 서로가 양보해야 하고
- ◎ 확신이 없는 운전은 최대의 적으로 알아야 하고
- ◎ 냉정한 판단과 보다 빠른 행동을 취해야 하고
- ◎ 우연한 사고에 말려드는 것도 방어해야 하는 것 등이다.

일부러 무모한 운전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항상 안전운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늘 있어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은 잡념 등으로 인하여 주의력이 언제나 완벽하다고는 할 수가 없어 다소의 부주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곧 방어운전인 것이다. 즉, 완벽하지 못한 주의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저 덮어놓고 주의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 환경에 적응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위험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그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운전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진정한 안전운전이라고 볼 수 있다.

2.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만인의 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무자격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방어운전이고 무엇이고 없는 것이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이 사상된다면 이는 자업자득이라 하겠으나 이러한 종류의 사고는 대부분이 보행자나 동승자 등 타인이 휘말려들기 쉽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살상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교통사회에서 만인의 적인 것이다.

지난 '89년의 교통사고중 무면허자가 일으킨 사고가 13,171건이나 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건수는 4,305건이나 된다.

전경찰력을 동원해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데도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금년 들어서도 1월부터 5월 13일까지 교통법규위반으로 859,479건이 단속되었는데 이중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5,684건이나 되고 있다.

3. 교통규칙을 지키면 손해는 없다.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안전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고 큰소리를 치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방어운전의 중요한 조건인 것이다.

예를 들어 법규를 지키지 않고도 다행히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끝난다 하더라도 위험이나 긴장이 수반되어 끝내는 위반을 문책당하게 되므로 규칙을 위반한다는 것은

百害일뿐 이익은 하나도 없다.

4.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百戰이라도 불안하지 않다.

孫子兵法에서 말하는 「知彼知己면 百戰百勝」도 교통전쟁에서 인용될 수 있는 말이다.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적을 안다는 것은 어떠한 사고가 어떤 때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그에 따른 주의를 할줄 알면 된다는 것이고, 자기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운전능력이나 성격 등의 장단점을 알고 무리가 없는 운전을 한다는 마음가짐인 것이다.

5. 도로는 전쟁터이다! 위험이 있음은 당연하다.

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안전은 당연한 것이고, 위험은 예외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운전자가 의외로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다.

오늘날과 같은 도로교통사정에서 도로는 이른바 교통전쟁의 戰場이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안이한 기분으로 나다니면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위험이 충만한 곳이라 생각하게 되면 저절로 마음가짐이 달라져 미리미리 위험을 인지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이다.<계속>